

갈등해결 실무형 제3기 화쟁위 출범

종단·사회 명망 높은 출재가
진보와 보수 아울러 15명 위촉

조계종이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이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화쟁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3기 화쟁위원 15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3기 화쟁위원은 도법스님(자성과 해신결사추진본부장), 지홍스님(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법안스님(불교사회연구소장), 흥선스님(직지사주지), 정문스님(총무원 사회부장), 덕산스님(결사추진본부 총괄부장), 초우스님(전국비구니회 사회부장), 김종빈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 성태웅 건국대 교수, 진정순 불교스카우트연맹 부연맹장, 김학규 전 용인시장, 이병길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형일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발촉 이후 화쟁위원회는 해군기지 문제로 대립하던 제주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노사분쟁 현장, 밀양 송전탑 예정지, 철도 파업 등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조정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러한 역할을 이어 나가기 위해 3기 화쟁위원회 역시 종단과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은 스님과 재가 인사들로 진용을 갖췄으며, 진보와 보수 성향의 인사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1, 2기 위원들이 학계와 법조계 등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불교 교리

의 현대화와 대안창출 능력에 무게를 두고 구성됐던 것에 비해 이번 3기 위원들은 갈등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실무형 인사들을 위촉한 것이 특징이다. 정문·덕산·초우스님을 비롯해 국회 사무차장을 역임한 이병길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노사정위원회 사회대화위원회 포럼 위원을 맡고 있는 조형일 사무총장,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인 이창곤 소장, 불교계 정서에 밝은 박병기 교수 등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한 점도 이 때문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화쟁위원회 3기가 출범했다. 그동안 도법스님이 위원장으로 화쟁의 중심을 잡아주고 갈등의 현장에서 서로를 아우르는 역할을 잘 해주셨다”며 “그간의 경험과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갈등 현장에서 싸움을 말리고 서로가 어울려 함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화쟁위원장 도법스님은 “사회 곳곳에서 화쟁의 필요성과 공간이 높아지고 있다”며 “사회통합을 위해 화쟁적 모색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는 만큼 더 큰 발심과 원력을 가지고 활동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위촉식 후 열린 회의에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도법스님을, 부위원장에 지홍스님과 김종빈 변호사를 각각 선출했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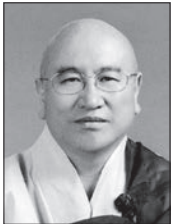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제3기 화쟁위원 15인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뒤줄 왼쪽부터 박병기, 이창곤, 진정순, 덕산스님, 김학규, 이병길, 조형일, 성태웅, 정문스님, 법안스님, 총무원장 자승스님, 도법스님, 초우스님, 김종빈 위원.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아름다운 동행과 탄자니아 학교 건립”

11교구 600여명 활동
불국사 자원봉사단
3000만원 정성 보태



제11교구본사 불국사 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 아프리카 학교 건립에 정성을 보탤다.

불국사 자원봉사단(단장 종상스님·사진)이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

원장)에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후원금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3년 3월에도 아름다운동행에 자비나눔 기금 30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날 전달식에는 부단장 일운스님, 재무 기형스님, 총무 철우스님이 참석해 봉사단을 대표해 기금을 전달했다. 지난 2002년 발족한 불국사 자원봉사단은 제11교구본·말사 비구니 스님들과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신도들로 구성됐다. 현재 6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불우이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한국불교 미래가 되어 달라”

법륜 전국비구니장학회, 6명 장학금 수여

법륜 전국비구니장학회(이사장 명성스님, 청도 운문사 회주·사진)는 지난 13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2층 접견실에서 ‘제5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대상자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 장학회 이사 스님들은 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6명을 선발, 이날 각각 5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달식에서 명성스님은 한명 한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며 간곡한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장학금을 마련해 전달하는 비구니 스님들의 뜻을 잘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이 보시금을 받고,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어떤 능력을 개발할 것인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우수한 한국불교의 동량이 돼 주어야 합니다.”

비구니장학회는 명성스님이 서화전을 통해 모은한 기금을 바탕으로



이사 스님과 흥라희 여사를 비롯한 몇몇 재가자들의 후원으로 지난 2010년에 설립됐다.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비구니 스님과 여성재가불자 22명에게 500만원씩 총 1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명성스님은 장학금 전달식에 앞서 이사 스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 이율이 낮아보니 보다 많은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며 “장학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안직수 기자 jashn@ibulgyo.com

출가자 활성화 스님 손에 달렸다



어현경 기자의
현장에서
econdo@ibulgyo.com

출가활성화 방안을 취재하며 느낀 건 해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이다. 스님이 되겠다고 사찰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연평균 300명, 이 가운데 25%는 중도포기다. 환속률만 낮춰도 출가자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행자들의 환속률을 낮추는가이다.

그러려면 먼저 어렵게 출가를 결심하고 사찰에 온 사람들이 돌아가는 이유를 살펴봐야 한다. 행자들이 중도에 하산하는 사유 1위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고 출가원력이 불명확해서, 사찰생활 부작용을 순으로 조사된다. 이 대목에서 입문교육, 수계교육 현장에서 행자들을 만나는 종단 출가상담사 스님들의 얘기는 흘러들 수 없다.

행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워야 할 은사 스님과 사형, 먼저 들어온 행자들이었다. 출가 전에는 스님들이 부처님처럼 인자했지만, 행자가 된 후에는 달라진 스님들 모습에 낙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행자들 눈에 비친 스님들을 지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히스테리컬한데다가 비

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며 수직적인 관계에 얽매어 딱딱한 모습”이다. 세속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스님들로 인해 감화는커녕 오히려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어지는 율력도 행자들을 힘들게 한다. 음식은 물론 청소, 빨래, 다림질도 잘해야 되고 제사도 잘 지내고 시방도 잘해야 되고, 염불도 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행자시절부터 듣다 보니 부담감도 크다. “과연 내가 스님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고민들을 나누한테 말도 못하고 끔뎀 앓다가 결국 스님이 되길 포기하고 산을 내려간다.

“우리 댄 다 참고 견뎌”는 얘기는 요즘 세대에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다. 결국 출가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성 스님들이 달라져야 한다. 스님들이 행자이던 시절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환속률을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 부처님께서는 〈사분율〉에서 “화상이 제자를 대할 때에는 지식을 생각하듯 하여라. 제자는 화상 섬기기를 아비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셨다. 은사나 사형 스님들이 언행에 모범을 보이고, 가족 생각하듯 행자를 대한다면 출가자 감소는 한시름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종립학교관리위원회에
중앙종회의원 심혜스님



양종회의원 도정스님, 간사에 전 중앙종회의원 승언스님을 각각 선출했다. 탄허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산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중앙종회의원 심혜스님(사진)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92차 회의를 열고 덕문스님의 팔공총림 동화사 주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위원장에 심혜스님을 선출했다. 또 부위원장에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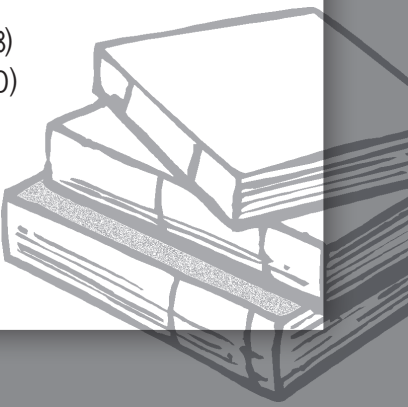
허정철 기자 hjc@ibulgyo.com

경전강독 모임 안내

부처님 말씀 중에 일승원교를 대표하며 대승사상을 집대성한 꽃중의 꽃 화엄경을 각성 큰스님 전가제자 3기생들이 먼저 화엄경개론인 이통현 장자의 「화엄경론회석」 7권을 교재삼아 정기적으로 「연구강독모임」을 가지려하니 뜻있는 스님들께서는 동참하시어 함께 공부할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 ※ 자 격 : 법랍 25년이상 비구·비구니
- ※ 날 짜 : 9월부터 매월 셋째주 화요일 오후3시
- ※ 장 소 : 충남 온양 대안사 (041-544-1464)
- ※ 교 재 : 「화엄경론회석」 각성큰스님 번역·강해 본
- ※ 참 가 비 : 없음
※동참하실 스님들은 미리 연락주시면 교재를 공동구매할 수 있습니다.
- ※ 연 락 처 : 동훈(010-2746-0088) 융하(010-5497-8018)
덕진(010-5431-0777) 도행(010-3520-9350)

통화불교전광원 3기 회장 금파동훈 합장



★ 범음범패 기초와 범패전통의식을 확실하게 잘 가르쳐 주는 장소 ★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2014년 제16기 신입생 및 통신생 추가모집

■ 상주권공 범패교육 : 2014년 10월 19일 오후3시 부터 ~ 10월 23일 12시 까지(4박5일)
(공부시간 :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 까지)

상주권공, 49재, 천도재 의식을 확실하게 이번 교육때 가르쳐 드림.

결제비 : 천수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다라니바라춤, 법고무, 회심곡(화청) 회원 수시모집

- 지원자격 : 스님, 포교사, 교양법사, 각 종단을 초월하여 절을 이어갈 후계자(유발자도 가능)
- 과 목 : 범패 상주권공의식, 각배영산의식, 불교교양과목 (초발심 치문)
 - 인제비 : 보소청진언, 각중불공의식, 49재의식, 천도재, 신중작법의식, 각중소, 낭독하는법
 - 범패소리 할당부터~은심계소리까지 약23가지 해공스님 직강
 - 결제비 : 바라춤, 도량계작법, 다계작법(나비춤), 법고무, 사물다루는법, 화청(회심곡)

- 과 정 : 2년(4학기), 1년(2학기)
- 입 학 일 : 9월 15일 (월요일) 오후 3시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학교에 토의), 반명함판 사진 3장, 주민등록등본 2통
- 범패통신생교육 : 매월 넷째주 토요일 오후 3시 부터 ~ 다음 일요일 12시 까지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2동 75914(우 : 502-242) ※매주 끝시간 한시간 동안 승려의 자질, 향상과 의식내용 강의를 해드립니다

해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비디오, DVD출시)

1	대령/관육	15	신중불공	29	작법무(사법찬소리도량계)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재의식 1
2	상주권공장법교의식	16	관음불공	30	작법무(향수니열사다라니)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재의식 2
3	상용영반	17	지장불공	31	작법무(향수니열사다라니)	45	화엄시식
4	회심곡(화청)1	18	상대화상중명불공	32	삼보통정	46	약사여래불공
5	회심곡(화청)2	19	종사관육	33	아침저녁중성	47	시련의식
6	구병시식	20	종사영반	34	향수해례예불	48	청혼의식
7	관음시식	21	가사불사의식	35	혼자서하는 민관육(간단한관육)	49	영기왕생계축,지옥계
8	정안시식	22	신중작법39위	36	생일불공	50	49재천도재실기(의식)2,3,4,5개
9	방생의식	23	간단한 신중작법	37	상주권공49재의식1	51	20일간 상주권공 범패교육 녹음테이프 30개 판매중
10	사물 다루는 법	24	전통조식예불	38	상주권공49재의식2		
11	안 태	25	천수경/정영예불	39	상주권공49재의식3		
12	시 다 림	26	상주권공/각배/영산예불	40	상주권공49재의식4		
13	산신불공	27	사상상단불공	41	제사불공		
14	미타불공	28	작법무(통정찬사바라)	42	상신이문	52	교재 2권 (1,2권) 100,000원

▶ 비디오 각 35, 000원 / DVD 각 35, 000원 ▶ 계좌번호 641010-56-000296 (노연숙)

■제품구입처 : 중무소 ☎ (062)362-8604 / 해공 스님 011-624-8604 ●범패교육 미리 신청 바랍니다. 20명 선착순 ●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학장 해공 스님